

프로야구 '2연전' 폐지... '홈 3연전-원정 1경기' 치른다



KBO리그 '2연전'이 폐지되고 '홈 3연전-원정 1경기' 일정이 도입된다. KBO는 23일 "기존 3라운드 홈 2연전-원정 2연전을 올 시즌을 끝으로 폐지한다"며 "대신 내년부터 3라운드를 홈 3연전-원정 1경기로 5개 팀씩 격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O는 10구단 체제, 팀당 144경기를 시작한 2015시즌부터 2연전 일정을 소화했다.

KBO, 5개팀씩 격년 편성 이동 횡수와 거리 최소화 새 방식 내년부터 시행키로

전체 144경기, 팀 간 16차전씩 치러야 하는 만큼 그동안 홈 8경기, 원정 8경기가 편성됐었다. 이에 따라 두 번의 3연전과 2연전 일정이 불가피했다. 올 시즌도 지난 13일부터 2연전 일정이 시작됐다. 이에 맞춰 화요일이었던 9일 하루 쉬었던 KBO

는 10·11·12일 3연전 뒤 주말 2연전을 치렀다. KIA는 13일 삼성과의 원정 2연전을 시작으로 SSG 홈(8월16·17일)-NC 홈(18·19일)-KT 원정(20·21일)을 소화했다. 16일 경기가 비로 취소됐고, 홈에서 연달아 경기를 치르면서 그나마 이동 부담은 덜했다. 하지만 이후 키움 원정(23·24일)-LG 원정(25·26일)-두산 홈(27·28일)-한화 원정(30·31일)-삼성 홈(9월 1·2일)-KT 홈(3·4일)-롯데 원정(6·7일)-SSG 원정(8·9일)-두산 원정(10·11일)-키움 홈(13·14일)-한화 홈(15·16일)-삼성 원정(17·18일)-LG 홈(20·21일)-NC 원정(22·23일)이라는

빠듯한 2연전 강행군을 소화해야 한다. 안 그래도 이동 거리가 많은 지방팀 입장에서는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2연전은 고민이었다. 특히 더위가 한창인 8월 2연전을 달리는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도 컸다. 2연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KBO는 실행위원회 의결 및 이사회 심의를 통해 '홈 3연전-원정 1경기' 편성안을 확정했다. KBO는 "선수단의 체력 부담과 이에 따른 부상 위험을 줄여 경기력을 향상, 팬들에게 더 박진감 넘치고 흥미로운 경기를 선보이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경기 편성이다"고 설명했다.

KBO는 또 이동 횡수와 거리 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잔여 경기(홈-원정 1경기)는 재편성되는 우선 취소 경기와 연동해 편성할 방침이다. 새로운 편성안은 2023시즌부터 시행된다. 5개 구단이 격년제로 '홈 3연전-원정 1경기' 또는 '홈 1경기-원정 3연전'의 시즌 스케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10개 팀의 홈-원정 경기 수도 격년제로 달라진다. 내년 시즌 '홈 73경기-원정 71경기'를 소화하는 팀은 2024년에는 '홈 71경기-원정 73경기'를 치르며 시즌을 보내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2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3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대 리버풀 경기 후반 8분 맨유 마커스 래시퍼드(왼쪽·24)의 슛이 리버풀 골키퍼 알리송 벤키케르(29)를 뚫고 골문에 꽂히고 있다. /연합뉴스

맨유, 리버풀 잡고 EPL 시즌 개막 이후 첫 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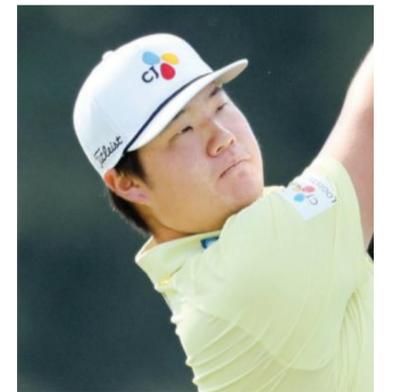
산초·래시퍼드 연속골로 2-1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리버풀을 잡고 2022-2023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개막 이후 첫 승을 신고했다. 맨유는 23일 열린 2022-2023 EPL 3라운드 홈 경기에서 리버풀을 2-1로 제압했다.

앞서 1~2라운드 브라이턴, 브렌트퍼드에 연이어 달미를 잡혔던 맨유는 이날은 제이든 산초와 마커스 래시퍼드의 골에 힘입어 승점 3을 쌓아 리그 14위에 자리했다. 이번 시즌 맨유 지휘봉을 잡은 에릭 텐 하흐 감독은 EPL에서 첫 승을 챙겼다. 아울러 맨유는 2017-2018시즌이던 2018년 3

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리버풀을 상대로 리그 경기 승리를 거뒀다. 무함마드 살라흐가 한 골을 만회한 데 그친 리버풀은 시즌 첫 패와 함께 3경기 무승(2무 1패·승점 2) 부진을 이어갔다. 순위는 16위다. 맨유는 전반 16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안토니 엘랑가가 내준 공을 중앙에서 받은 산초가 수비를 제친 뒤 오른발 슛을 꽂아 기선을 제압했다. 후반 8분엔 역시 과정에서 앙토니 마르시알이 밀어준 공을 래시퍼드가 몰고 들어가 페널티 지역 안에서 오른발로 골 그물을 흔들며 승리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리버풀은 후반 36분 살라흐의 헤더로 한 골을 따라갔지만, 끝내 균형을 맞추지는 못했다. 살라흐는 이번 시즌 리그 2호 골을 넣었다. 맨유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벤치를 지키다가 팀의 승리가 가까워진 후반 41분 래시퍼드 대신 투입돼 추가 시간까지 10분가량을 소화하는 데 그쳤다. 호날두는 이번 시즌 들어 브렌트퍼드와의 2라운드 선발로 나선 가운데 골은 아직 넣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재

PGA 투어 챔피언십 임성재 4언더파 출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21-2022시즌 마지막 대회인 투어 챔피언십이 25일부터 나흘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 레이크 골프클럽(파70·7346야드)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PGA 투어 2021-2022시즌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로 여는 대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22일 끝난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까지 선수들의 시즌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한 페덱스컵 포인트 순위 상위 30명만 출전할 수 있으며 이들은 페덱스컵 순위에 따른 보너스 타수를 안고 대회를 시작한다. 페덱스컵 순위 1위로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한 스코티 셰플러는 10언더파에서 1라운드를 시작하고, 2위 패트릭 캔틀레이(이상 미국)는 8언더파에서 대회를 시작하는 방식이다. 3위 윌 젤러토리스가 7언더파, 4위 랜더 쇼플리는 6언더파, 5위 샘 번스(이상 미국)는 5언더파 보너스를 받았다.

이후로는 6~10위가 4언더파, 11~15위 3언더파, 16~20위 2언더파, 21~25위 1언더파를 안고 대회를 시작한다. 26일부터 30일까지는 보너스 타수가 없다. 페덱스컵 챔피언에게는 보너스 1800만 달러(약 241억원)를 주고, 최하위인 30위에게도 상금 50만 달러(약 6억7000만원)를 주는 '푼 잔치'가 펼쳐진다.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가 4년 연속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했다. 현재 순위는 10위로 4언더파를 안고 대회를 시작한다. 또 이경훈은 26위로 생애 첫 투어 챔피언십 진출의 꿈을 이뤘다. 지난해 페덱스컵 챔피언이었던 캔틀레이가 올해도 1위에 오르며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우승자가 된다. 2007년 창설된 페덱스컵 플레이오프에서 2회 우승한 선수는 2007년과 2009년의 타이거 우즈(미국)와 2016년과 2019년의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2명이 전부다. 이번 시즌 페덱스컵 순위 7위 매킬로이가 역전 우승할 경우 사상 최초의 3회 우승자가 된다. 이 대회가 끝나면 PGA 투어를 떠나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로 이적할 선수 7명이 공개될 예정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PGA 투어는 LIV 시리즈로 이적한 선수들의 대회 출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LIV와 계약 사실을 숨기고 나오는 선수들까지 걸러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플레이오프 2차전까지 출전했던 김주형의 신인왕 도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신인 영이 14위로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했고, 사히스 티갈라(미국) 역시 28위로 김주형(34위)을 앞섰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전북 현대, '동아시아 최강' 놓고 일본 우라와 레즈와 승부

25일 AFC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가 '동아시아 최강' 타이틀을 놓고 '일본의 붉은악마'와 한판 대결을 펼친다. 전북은 25일 오후 7시 30분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 2002에서 우라와 레즈(일본)와 2022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준결승전을 치른다. ACL은 조별리그부터 준결승까지 서아시아와 동아시아로 나뉘어 일정을 소화한다. 준결승전에서 이긴 두 팀이 서아시아와 동아시아의 자존심을 걸고 결승에서 맞대결하는 구도다. 전북은 이제 두 계단만 더 오르면 2016년 대회 이후 6년 만에 아시아 최강 클럽 타이틀을 탈환한다.

다. K리그1에서는 선두 울산 현대와 승점 차가 9가지 벌어져 터져서, 전북에 ACL 우승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더해졌다. 그런데 준결승 상대가 만만치 않다. 우라와는 J리그를 대표하는 인기 구단이다. 게다가 경기도 우라와 홈인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킥오프한다. 원래 ACL 토너먼트는 홈 앤드 어웨이로 치렀는데,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한 곳에 모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번 대회 동아시아 토너먼트를 사이타마가 유치했는데, 사이타마를 연고로 둔 우라와가 끝까지 생존해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안고 준결승전을 치르게 됐다.

전북은 경기장을 가득 메운 6만3000여 우라와 팬들과도 싸워야 한다. 극성맞기로 유명한 우라와 서포터스는 팀을 상징하는 붉은 유니폼을 입고 언제나 뜨거운 응원을 펼친다.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주로 나서는 스웨덴 국가대표 출신 데이비드 모베리 갈손이 경제대상 1호로 꼽힌다. 탄탄한 수비력만큼이나 공격 재능도 뛰어난 덴마크 출신 센터백 알렉산더 솔츠도 주의해야 한다. 또 마르세유(프랑스)에서도 똘 사카이 히로키는 아시아 최고 라이트백을 꼽을 때 늘 거론되는 선수다. 전북은 원정에서 힘겨운 승부를 펼쳐야 하지만, 분위기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수준이다.

대구FC와 16강전, 비셀 고베와 8강전에서 잇따라 짜릿한 연장전 승리를 거뒀다. 무엇보다 여름 들어 화력이 사그라들었던 '브라질 특급' 구스타보가 고베전에서 결승골을 포함해 1골 1도움을 올리며 다시 상승세를 탄 게 큰 소득이다. 다만, 거듭된 120분 경기로 체력이 많이 소진된 점은 전북의 약점이다. 고베전에서 주전 센터백 윤영선이 근육 경련 증상을 보이며 연장전에서 교체된 점도 걱정거리다. 전북은 우라와와 역대 전적에서 3승 1무 2패로 앞선다. 이 중 2패는 전북이 아시아의 강호로 부상하기 전 당한 패배다. 이후 무려 15년 동안 전북은 우라와에 한 번도 안 졌고, 최근 2연승을 기록했다. /연합뉴스